

“너 잘 만났다”... 손흥민·아자르 에이스 충돌



손흥민

한국·벨기에 미래 10년 이끌 선수들

내일 오전5시 H조 마지막 대결 ‘후끈’

에이스의 충돌이다.

한국과 벨기에 축구의 ‘차세대 주역’으로 손꼽히는 손흥민(22·레버쿠젠)과 에덴 아자르(23·첼시)가 27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맞붙는다.

측면 공격수인 둘은 두 나라의 축구 미래를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짊어지고 나갈 재목으로 평가받는 선수들이다.

포지션이 나란히 왼쪽으로 갈아 이날 경기에서 자주 맞대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워낙 활동폭이 넓은 선수들이라 가끔 서로 막고 뚫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흥민은 23일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0-3으로 뒤진 후반 5분에 추격하는 골을 넣었다. 앞서 18일 러시아와의 1차전에서도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워낙 뛰어난 몸놀림을 선보여 맨오브더매치(MOM)에 선정될 만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10골을 터뜨리며 두 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을 달성,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2-4로 패하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졌지만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가능성에 위안을 얻으며 쓰린 속을 달래고 있다.

아자르는 사실 더 설명이 필요없는 수준의 선수다. 2012-2013시즌부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유니폼을 입은 그는 2013-2014시즌 리그 경기에서만 14골을 몰아쳤다.

벨기에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4강 또는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바로 아자르가 있기 때문이다. 측면 공격은 물론 공수 조율에도 직접 나서는 등 이번 대회에서 어시스트 2개를 기록 중이다. 그 어시스트 2개는 벨기에가 조별리그 2연승을 거두는데 모두 결승골로 이어졌다.

결국 손흥민과 아자르 가운데 자신의 기량을 더 발휘하는 쪽이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벨기에에는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된 터라 아자르를 아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나올 선수도 ‘신예’에 속하는 아드난 아누자이(19·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가능성을 인정받은 아누자이는 1,2차전에 결장했으나 다소 부담이 덜한 한국을 상대로 월드컵 데뷔전을 치를 것이 유력하다.

특히 벨기에에는 최전방 공격수로도 로멜루 루카쿠(21·에버턴) 또는 디보크 오리기(19·윌)가 나올 것으로 보여 20세 안팎의 젊은 선수들로 공격진을 구성할 전망이다. 한국 역시 손흥민 외에 지동원(23·도르트문트)도 백업 공격수로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 이번 한국과 벨기에의 경기는 ‘영간’들의 활약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아자르

박주영, 홍명보호 살릴 길은 골 뿐



두경기 부진 속 홍감독 믿음에 보답할까

박주영(아스널)은 과연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인 홍명보 감독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한국 축구대표팀은 27일 오전 5시(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벨기에와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비기거나 지면 그대로 조별리그 탈락이기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다. 이기더라도 ‘경우의 수’를 따진 뒤에야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 최소 2골짜 이상으로 벨기에를 꺾어야 한다.

한국 선수들도 벨기에를 상대로 다득점하고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극히 작은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다만 벨기에를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축구팬들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16강 진출이 좌절되더라도 투지 넘치는 경기 끝에 벨기에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면 현 상황에서는 ‘금상첨화’다.

이기려면 ‘골’이 필요하다.

그러나 홍명보호의 ‘윌톱 스트라이커’는 지난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포지션으로 지목받았다. 박주영은 러시아전과 알제리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슈팅 수가 단 1개에 그쳤다. 러시아전 뒤에는 그가 동료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모습이 중계에 잡힌 것을 두고 ‘박주영이 0골 0도움 1타봉을 기록했다’는 비난 섞인 우스갯소리가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백업 요원인 김신욱(울산)이나 이근호(상주)를 벨기에전 선발로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지만 홍 감독이 박주영 카드를 버릴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홍 감독이 만약 박주영을 벨기에전 선발에서 제외한다면 그 동안의 선택이 틀린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제 박주영이 할 수 있는 일은 벨기에전에서 공격포인트를 올려 홍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는 동시에 축구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일이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프리킥 역전골을 넣어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박주영이다.

큰 경기에서 ‘한 간’씩을 꼭 해줬던 그가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다시 찾아 한국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로서의 명예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한·벨기에 ‘거꾸리와 장다리’ 누가 더 셀까

김신욱·이근호vs 펠라이니·메르텐스 ‘장·단신 콤비’ 대결

‘어느 쪽 거꾸리와 장다리가 더 세냐.’

27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열리는 브라질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H조 한국과 벨기에의 경기에서는 ‘장·단신 콤비’의 대결이 기대된다. 한국에서는 김신욱(울산 현대·196cm)과 이근호(상주 상무·176cm), 벨기에에는 마루안 펠라이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194cm)와 드리스 메르텐스(나폴리·164cm)가 팀 내에서 ‘거꾸리와 장다리’로 불리는 조합이다.

두 콤비는 이번 대회에서 팀 내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먼저 한국의 ‘육군 병장’ 이근호는 18일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중거리포로 골 맛을 봤고 23일 알제리와의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를 2개나 올렸다. 이근호는 특유의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앞세워 후반 상대 수비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며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또 김신욱 역시 알제리전에 교체 선수로 투입돼 공격불경험에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한국의 후반 대반격을 이끌었다. 김신욱은 공격불에 이은 헤딩슛 또는 헤딩 패스에 이은 ‘제2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임무를 주로 맡는다. 알제리전 두 번째 골은 바로 이런 루트를 통해 얻어낼 수 있

었다.

이는 벨기에의 ‘장·단신 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벨기에에는 18일 알제리와의 1차전에서 펠라이니와 메르텐스를 교체 선수로 기용해 동점골과 역전 골을 연달아 뽑아냈다. 펠라이니가 케빈 더브라위너(볼프스부르크)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어 1-1을 만들었고 메르텐스는 오른쪽을 파고들다 에덴 아자르(첼시)의 패스를 받아 승부를 뒤집었다.

이들은 23일 러시아와의 경기에서는 나란히 선발로 나왔고 특히 메르텐스는 전반에 거의 ‘윌맨쇼’를 펼치며 러시아 수비진을 정신없게 만들었다.

이 조합은 27일 한국-벨기에 경기에서도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27번째 생일 메시 “소원은 우승 트로피 들어 올리는 것”

■ 이모저모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전력의 핵 리오넬 메시(27·FC바르셀로나)가 27번째 생일 소원을 공개했다.

다음 달 13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나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2014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승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이다.

1987년 6월 24일생으로 이날 생일을 맞은 메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팬들의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메시는 “완벽한 올해 생일 선물은 월드컵

에서 우승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먼저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한 경기에 집중해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썼다.

○2014 브라질월드컵 축구대회 16강 관문을 넘지 못한 이탈리아가 후폭풍에 휩싸였다.

체사레 프란렐리 이탈리아 축구대표팀 감독과 잔카를로 아베테 이탈리아 축구협회 회장은 25일(한국시간) 이탈리아가 대회 16강 진출에 실패한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주요 외신에 보도했다.

아베테 회장은 프란렐리 감독만은 그만 두지 말라고 설득하겠다고 했으나 프란렐

리 감독은 “내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스페인 축구 대표팀의 슬슬한 귀국 비행기에 변경이 내리쳤다.

‘유로 위클리 뉴스’는 25일(한국시간) 스페인 현지 언론을 인용, 브라질 쿠리치바에서 출발한 대표팀의 이베리아 항공편 비행기가 스페인 라스팔마스를 거쳐 마드리드에 내린 순간 날개 부분이 버락에 맞았다고 전했다.

비행기에 변경이 내리치는 것은 그리 드문 사례가 아니다. 그러나 가뜰이나 충격적인 탈락으로 자존심을 구긴 마당에 폭발하는 듯한 굉음을 들으며 고국 땅을 밟는 기분은 좋을 수 없다.

연합뉴스